10.18219/ddmh..109.202003.241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鄭雨峰*

Ⅰ. 머리말
Ⅱ. 〈북정동유록〉의 작자
Ⅲ. 〈북정동유록〉의 작품세계
Ⅳ. 마무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정동유록>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이다. 모두 2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정동유록>의 작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북정동유록>에 나타난 작품 세계를 분석하였다. 작품 내 관련 정보를 근거로 <북정동유록>의 작자는 釣隱 李世澤(1716~1777)임을 밝혔다. 李世澤은 溫溪 李瀣의 후손으로서, 영조시대 탕평정국 속에서 영남 남인으로서 대사헌 등의 관직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李世澤은 1761년에 北評事로 임명되어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를 공무 수행했는데, 그때 쓴 기행문이 <북정동유록>이다.

<북정동유록>에서 주목할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작자는 산수 유람의 과정 및 빼어난 경관에 대해 핍진한 묘사와 참신한 비유 등을 활용하여 유람 공간의 현장감 및 작가의 감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유람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는 한편, 산수 유람 속의 청정하고 탈속한 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부각하였다. 둘째, 조선 왕실 유적에 관한 관심을 보인 부분이다. 이세택은 함경도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조선 왕실의 개국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설화, 일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셋째, 함경도 지역민에 대한 작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후하였던 변방 지역인 함경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작자는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상업도시로서 번성하고 있던 원산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함경도 지역 문사들의 문장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작자는 함경도 지역에 대한 기왕의 소문이나 통념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북정동유록, 이세택, 북평사, 한글 기행문, 금강산, 함경도, 여행, 산수유기

Ⅰ. 머리말

이 논문은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정동유록>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이다. 모두 2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인데, 권1은 국립한글박물관에, 권2는 단국대도서관에 각각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정동유록>의 작자를 밝히고, <북정동유록>에 나타난 작품 세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한글기행문의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한글 기행문으로 알려진 자료는 많지 않다. 한문으로 쓰여진 기행문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현재 전해오는 한글 기행문은 수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기행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글 연행록을 제외하고 10여 편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의유당 남씨가 지은 <동명일기>가 크게 주목을 받아 여러 편의 연구 성과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한글 기행문 작품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행문학 연구가 한문 기행문에 집중되는 등 제한적이었으며, 남성과 여성, 한글 기행문과 한문 기행문을 포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문 기행문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한글 기행문의 다채로운 문학 세계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 기행문을 새로운 연구 방법과 시각 속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한글 기행문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1]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한글 기행문의 창작과 향유의 다채로운 양상을 구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 <북정동유록>을 중심으로 작자와 작품 세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한글 기행문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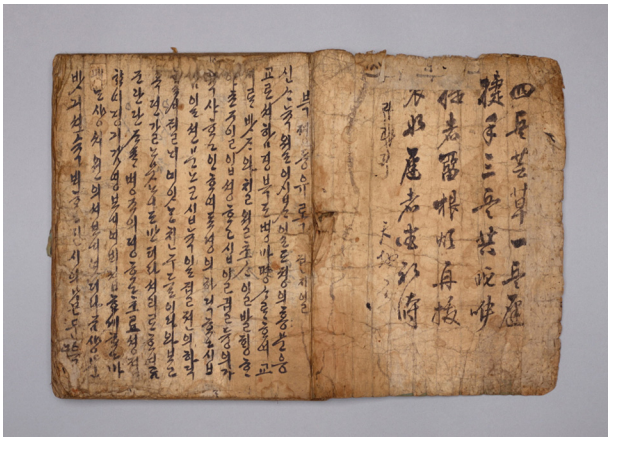
1) 최근 金泳根(1793~1873)이 지은 한글기행문 한 편이 학계에 새롭게 소개되었다. 구사회, 「새로운 한글 유산록 〈금강산졀긔 동유록〉의 작자와 작품 분석」,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2017.

Ⅱ. 〈북정동유록〉의 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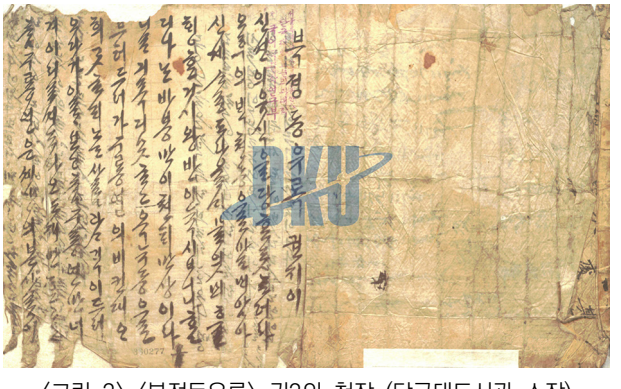
먼저 <북정동유록>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정동유록> 권1
著者 李世澤(1716~1777)
板種 筆寫本
發行 [刊寫地不明]: [刊寫者不明], [庚戌]
形態 零本 1冊(59張), 無邊 無界, 11行字數不定; 31.3 × 26.1cm
주기사항
표기 : 한글
表題 : 븍졍동유록
『삼국지연의』 이면에 필사하였음
筆寫記 : 경슐 십월야의 밤은 길고 --
線裝
소장처 : 국립한글박물관

<북정동유록> 권2
著者 李世澤(1716-1777)
板種 筆寫本
發行 [刊寫地不明]: [刊寫者不明], [庚戌]
形態 零本 1冊(62張), 無邊 無界, 13行字數不定; 28.0 × 24.8 cm
주기사항
표기 : 한글
表題 : 븍졍동유록
『삼국지연의』 이면에 필사하였음
筆寫記 : 경술십월십팔일 필셔
線裝
소장처 : 단국대도서관



〈그림 1〉〈북정동유록〉 권1의 첫장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 2〉〈북정동유록〉 권2의 첫장 (단국대도서관 소장)

<북정동유록>은 본래 두 권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인데, 현재 국립한글박물관과 단국대도서관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각 권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 필사기이다. 권2의 끝에 '경술십월십팔일 필셔'라고 쓰여 있는데, '경술년'은 1790년, 1850년, 1910년 중의 하나일 것이다. 표기법 등을 고려하여 필사 시기를 추정해보면 경술년은 1790년 혹은 1850년으로 추정된다.

필사기에는 "이 칙들은 ᄂᆞᆷ의 집의 내여 주디 ᄆᆞᆯ고 ᄌᆞ손의 보게 ᄒᆞ미라."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책의 필사가 집안 내 사람들,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게 하고자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여성 독자들이 집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 같은 한글 기행문이 널리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북정동유록>에 필사되어 있는 필사기 기록은 한글 기행문의 창작 및 유통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정동유록> 작품 내에서 한자어의 뜻을 ( )를 사용해서 풀이하는 부분이 나온다. 예컨대 '어션(고기잡ᄂᆞᆫ ᄇᆡ)'과 '샹고션(댱ᄉᆞ의 ᄇᆡ)'이 그 예이다. ( ) 안의 설명이 작자 본인에 의해 한 것인지, 혹은 필사자에 의해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것임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북정동유록>의 필사는 『삼국지연의』를 필사한 종이를 뒤집어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권1의 장10 속지에는 '삼국지 권지이십뉵'이라고 쓰여 있으며, 다른 곳에는 '삼국지 권지이십칠'이라고 쓰여 있다. 단국대 소장본 권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국지연의』 뒷면을 활용해 필사했다.

<북정동유록>은 권1과 권2로 구분되어 있는데, 작품의 전체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은 글자 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권1이 16,900자, 권2가 17,800자 정도이다. 이를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 보면 180여 장이 된다.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다.

<북정동유록>은 1761년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북평사 임명 교지를 받는 날부터 시작하여 경상도 영해 도착까지 약 3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오고 가는 도중에 여러 명소들을 두루 유람하였던 경험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날짜별 여정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부록 1] 참고).

작자는 6월 24일 弘文館 副應敎로서 咸鏡道 兵馬評事에 임명되는 교지를 받고 7월 4일 慶尙道 禮安에서 출발하여 7월 9일 漢陽에 入城하였다. 7월 10일에 肅謝하고, 7월 16일에 친구들과 전별식을 갖고 여정을 시작하였다. 당시 전별식에 참여한 사람은 京畿監司 蔡濟恭, 判決事 李光瀷, 正言 李徽中, 掌令 申近 등이다. 이후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 일대를 거치면서 북평사로서의 공적 임무—과거 시험 주관, 군사 및 군사시설 점검, 국경 방어 태세 점검—를 수행하였다. 이후 북평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러 명소들을 두루 유람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 공무로서의 여행이라는 한 축과 유람객의 탐방으로서의 여행이라는 또 다른 축이 그것이다. 이 두 축이 서로 맞물리고 교체되면서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점에서 작품 제목인 '북정동유록'의 의미 또한 해석될 필요가 있다. '北征錄'과 '東遊錄'의 합성어인 '북정동유록'에서 '북정록'은

北評事로 함경도 일대를 공무 수행한 경험을 담았고, '동유록'은 북평사 임무를 마친 후 귀환하는 중에 금강산을 들러 유람한 경험을 서술했다. <북정동유록>은 금강산 기행문인 동시에 함경도 북평사로서 공적 여행의 기록물이기도 하다. 현재 전하고 있는 한글 기행문은 대체로 명소를 탐방, 유람하는 내용이거나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기행문을 포함해 한글 작품 전체로 확대해 보아도 <북정동유록>처럼 관료의 공적 임무 수행을 기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산수 유람과 유배 체험을 다루었던 기왕의 한글 기행문과 달리 <북정동유록>은 중앙 관료가 지방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그러면 <북정동유록>의 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 내 관련 정보를 통해 작자 추정이 가능하다.

> ① 신ᄉᆞ 뉵월 이십ᄉᆞ일 도졍의 홍문응교로셔 함경븍도 병마평ᄉᆞ를 ᄒᆞ여 교지를 밧ᄌᆞ와 칠월초ᄉᆞ일 발힝ᄒᆞ야 초구일 입셩ᄒᆞ고 십일 궐듕의 가 슉샤ᄒᆞ고 인ᄒᆞ여 조졍의 하딕ᄒᆞ고[2]

> ② 경듕 친구들이 햐쳐의 만나 뎐별ᄒᆞᆯ ᄉᆡ 병조판셔 니창의과 경긔감ᄉᆞ 치데공과 판결ᄉᆞ 니광익과 졍언 니휘듕과 장녕 신근과 참봉 니만림과 도ᄉᆞ 니지낙든 사ᄅᆞᆷ이 각각 은근 뎐별ᄒᆞ더라.[3]

위의 두 인용문은 작품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작자는 辛巳年 6월 24일[4]에 咸鏡道 兵馬評事에 임명되었다. 辛巳年이 어느 해인가와 관련해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兵曹判書 李昌誼(1704~1772), 京畿監司 蔡濟恭(1720~1799), 判決事 李光瀷(1703~1780), 正言 李徽中, 申近(1694~1764) 등이 작자를 전별하였다고 하였다. 李昌誼는 1761년에 좌참찬, 병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5]

---

2)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한글박물관 소장본.

3)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한글박물관 소장본.

4) 이 논문에서 날짜 표시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음력이다.

5) 徐命膺, 「左議政翼獻李公神道碑」, 『保晩齋集』 권11, 『한국문집총간』 233, 284면, "辛巳連拜左參贊, 兵曹, 工曹判書, 兼同知成均館事."

그리고 蔡濟恭은 1760년 12월에 京畿監司가 되었으며, 1761년 10월에 工曹參判에 임명되었다.[6] 이를 통해 볼 때 신사년은 1761년(영조 37)에 해당된다.

그러면 작자는 누구인가? 『승정원일기』 1761년 6월 24일자 기록을 보면 李世澤을 북평사로 임명(李世澤爲北評使)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李世澤은 1761년 6월 24일 북평사에 임명되었으며, 그 이전인 동년 5월 28일에는 副應敎에 임명되었었다. 副應敎는 홍문관 종4품이다. 인용문 ①에서 "홍문응교로셔 함경븍도 병마평ᄉᆞ를 ᄒᆞ여"라는 구절과 부합한다.

① 이 날은 국긔오 ᄯᅩ 온혜선조 긔일이라

② 녕샹의 ᄃᆡᆸᄉᆞ고 큰 비ᄅᆞᆯ 셰워시니 이ᄂᆞᆫ 황희(黃喜) 졍승이 동도(東道)의 슌녁(巡歷)ᄒᆞ실 제 쉬시던 곳인 고로 비ᄅᆞᆯ 쇼공ᄃᆡ(召公臺)라 ᄒᆞ여시니 우리게 외션조(外先祖) 되시ᄂᆞᆫ 고로 비(碑) 압ᄒᆡ 가

작자가 李世澤임을 방증하는 또 다른 정보를 제시해 본다. 8월 14일자 작품 본문 중에 "이 날은 국긔오 ᄯᅩ 온혜[7]선조 긔일이라"라는 대목이 보인다. 음력 8월 14일이 온혜선조의 기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온혜선조는 李世澤의 七代祖인 李瀣(1496~1550)를 가리킨다. 退溪 李滉의 친형이었던 溫溪 李瀣는 경상도 安東 溫惠里에서 태어났다. 李滉의 「墓誌」에 따르면, "楊州의 민가에 이르러 열이 일어나 약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 마침내 돌아가시니, 그 해 8월 14일이다. 향년 55세이다(至楊州民家, 熱作藥無效, 遂卒. 是歲八月十四日也, 享年五十五)"라고 하였다. 李瀣의 忌日이 8월 14일이며, 이 기록은 작품 내 서술과 일치한다.

인용문 ②는 조선 초의 명재상으로 일컬어진 黃喜와 관련된 대목이다. 관동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黃喜가 백성들을 잘 구호하고, 소공령 고개바위 위에서 쉬었다가 갔다. 黃喜의 4대손 黃孟獻이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이곳에 와서 昭公臺의 사실을 적은 비를 세웠다. 여기서 <북정동유록>의 작자는 황희를 外先祖라고 하였다. 李世澤의 가계를 살펴보면, 李世澤의 四代祖 李崔의 부인이 淑人 長水黃氏이다. 四代祖母

6) 『한국문집총간』, 『번암집』 해제를 참조.

7) 원문에 '온혜'를 李瀣의 호인 '온계'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온혜'로 판독했다.

長水黃氏의 부친은 正郎 벼슬을 지낸 黃時幹(1558~1642)이다. 黃時幹은 黃喜의 8세손으로, 西厓 柳成龍의 문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에 <북정동유록>의 작자는 溫溪 李瀣의 후손인 李世澤(1716~1777)임을 확증할 수 있다.

『眞城李氏溫溪派世譜』(1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와 『眞寶李氏世譜』(4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를 참조하여 李世澤의 家系圖를 간략하게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瀣 - 寘 - 純道(系后) - 崔 - 英哲 - 在建 - 守曾(系后)
梁 - 守弘(系后)
檠 - 守恒(系后) - **世澤** - 龜祥
龜福(出后)
龜祿
龜祜
女 張時樞
世鐸
世鳴
集 - 守弘(出后)
守恒(出后)
守曾(出后)
滉 - 寯 - 安道
純道(出后)
詠道

李世澤은 溫溪 李瀣의 8世孫이다. 李瀣의 손자인 李純道는 본래 퇴계 이황의 친손자인데, 出后하여 李瀣의 아들인 李寘의 양자로 들어갔다. 李瀣는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33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權知正字를 시작으로, 대사헌, 황해도 관찰사, 한성부 우윤,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그는 충청도 관찰사 재임 중 처리한 일이 빌미가 되어 무고를 당했고 혹독한 형을 받은 뒤 갑산으로 유배를 가던 도중에 찌는 더위 속에서 장독이 심해져 양주의 주막에서 세상을 떠났다. 효종 때 儒林들의 발의로 고향인 안동 도산면 온혜리의 淸溪書院에 아버지 이식, 숙부 이우와 함께

배향되었다.

李世澤은 1716년(숙종 42)에 부친 李守恒과 어머니 順興安氏(進士 安老石의 따님) 사이에서 맏아들로 경상도 禮安에서 태어났다. 부친 李守恒은 자가 仲久이며 호가 山後齋로, 벼슬은 監役僉樞를 역임하였다. 족보에 따르면 부친 이수항은 『文純公實記』, 『陶山及門諸賢錄』, 『四七通辨』, 『山後雜錄』 등의 저술을 남겼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陶山及門諸賢錄』이다. 이 책은 李滉과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아 엮은 책이다. 처음에 權斗經이 100여 명의 기록을 모아 『退門諸子錄』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 이황의 후손 李守淵, 李守恒, 李野淳 등이 증보하여 260여 명의 기록을 실어 간행한 것이다.

李世澤은 3남 4녀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孟潤, 호는 釣隱으로 경상북도 예안 출신이다. 이세택의 동생으로 현감 벼슬을 역임한 李世鐸과 李世鳴(관직 기록 없음)이 있으며, 金應錫(禮安人), 金瑞必(豊山人), 金維(禮安人), 金光燦(義城人)에게 각각 시집을 간 여자 형제가 넷이 있었다.

李世澤은 進士試를 거쳐 1753년 庭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였다. 檢閱에 이어 校理를 지냈으며, 1755년에는 退溪 李滉의 저술 『聖賢道學淵源』을 영조에게 바쳐 貂帽를 하사받기도 했다.[8] 이세택은 홍문관 부응교로 있다가 1761년 6월 24일 북평사로 임명되어 함경도 일대를 돌아보고 왔는데, 그때 쓴 기행문이 바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정동유록>이다. 북평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고향인 예안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762년 승지로 발탁되었다. 갑술환국(1694년) 이후 영남 남인은 개별적인 능력에 의해 정계에 제한적으로 진출하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9] 퇴계의 후손이었던 이세택은 영남 남인으로서 정계에 진출하여 공조참판, 대사헌 등의 관직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영조의 신임을 받은 이세택이었지만, 그 또한 몇 번의 정치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인동부사 재직시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1768년 단양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그는 1768년 10월 13일 충청도 단양군

8) 영조실록을 살펴보면, 1755년에 이세택이 이황의 『聖賢道學淵源』을 올리자 영조가 상을 내리고 친히 그 서문을 지었으며, 영조는 이황의 또 다른 저술인 『聖學十圖』의 서문을 직접 짓고 그 책을 간행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9)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유배지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다음날인 14일에 부친상을 맞게 되었다. 법전에 의거하여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 장사를 지내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함경도 종성부로 압송되었다. 이후 本鄕定配로 바뀌었으며, 1769년 12월에 사면령이 내려졌다. 이후 다시 관계에 복귀하여 공조참판, 대사간, 대사헌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세택의 부인은 貞夫人 昌寧成氏로, 佐郎 벼슬을 지낸 성세항의 따님이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4남 2녀를 두었다. 네 아들 龜祥(통덕랑 벼슬), 龜福(季父 李世鳴 入后), 龜祿(통덕랑 벼슬), 龜祜(통덕랑 벼슬)과 張時樞과 權載巽에게 시집을 간 딸을 두었다. 인동장씨 여헌종택 고문서(현재 장서각 소장) 중에는 이세택이 작성한 간찰이 여러 건 소장되어 있다. 정조와 순조 연간에 중앙 정계에서 활약했던 柳台佐는 이세택의 손녀사위이다.

이세택이 남긴 저술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세택은 문집『釣隱集』을 남겼다고 하지만,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10] 현재 전하고 있는 이세택의 저술로서 주목할 것은『淸凉志』, 한글본『退溪先生年譜』,『洛窩拙記』그리고 한문본과 한글본이 동시에 전하는 당쟁 기록「黨化錄」이다.

이 중에서『淸凉志』는 중국『武夷志』의 분류방식을 참조하여 이세택이 1771년에 편찬한 山誌이다. 청량산의 자연환경, 문화유적, 관련 문학작품을 두루 포괄하고 수록하였다.『청량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11] 또 다른 地誌 저술인『龍山誌』역시 주목할만하다.『龍山誌』는 이세택이 1775년경에 편찬했는데, 진성이씨 후손들이 세거하였던 온혜리 근처에 있는 龍頭山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龍壽寺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序文에 이어 山川, 寺刹, 紀題, 先賢 遺蹟, 古蹟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현재 이 책은 이세택의 친필본으로 추정되는 유일본으로, 경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10) 윤동원이 안동지방 인쇄문화를 다룬 논문에서도 이세택의 문집을 언급하면서 현재 전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윤동원,「안동지방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고인쇄문화』15,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11)『청량지』에 대해서는 여러 성과가 제출되었다. 전병철,「청량지를 통해 본 퇴계 이황과 청량산」,『남명학연구』26,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08; 이세택, 전병철 외편,『청량산 산지』, 이회, 2008; 청량산박물관 편,『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민속원, 2017; 전병철,「명대 양긍의 〈무이지〉가 조선에 끼친 영향」,『한문학논집』42, 근역한문학회, 2015.

이세택의 저술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글본 『퇴계선생연보』이다. 이세택은 한문으로 작성된 『퇴계선생연보』 서애본을 대본으로 한글로 번역하였다.[12] 모두 2권으로 되어 있으며, 발문은 李晩耆가 작성했다. 그 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씩예 칙을 매여 션죠 퇴계션싱년보를 벗기시니 이ᄂᆞᆫ 둉고조 참판공의 번역ᄒᆞ신 ᄇᆡ라 딜이 ᄀᆞᆫᄀᆞᆫ히 뻣더니 계ᄒᆡ 팔월일의 뵈오려 가니 칙을 내여 보이시고 나믄 쟝의 셰계ᄅᆞᆯ 벗기려 ᄒᆞ시며 셰계 조고만ᄒᆞᆫ 칙을 내여 쥬시니 우리 션군의 금부도ᄉᆞ공의 ᄡᆞ신 ᄇᆡ라. …… ᄉᆞ간원뎡언 만기ᄌᆡᄇᆡ근셔[13]

발문에 의거해 보면, 『퇴계선생연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李晩耆(1825-1888)의 從高祖가 되는 參判公이다. 李晩耆는 李瀣의 11代孫이다. 이만기와 이세택의 관계를 도표로 간략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瀣 - 寘 - 純道(系后) - 崔 - 英哲 - 在建 - 守曾(系后)
梁 - 守弘(系后) - 世述 - 龜朋 - 秉淳 - 彙
- **晩耆**
檠 - 守恒(系后) - **世澤** - 龜祥

현재 전하는 한글본 『퇴계선생연보』는 이세택이 처음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이만기의 종고모인 최진사 부인이 1844년에 필사한 것이다. 이세택이 한글로 『퇴계선생연보』를 번역한 것에서 짐작하듯이, 이세택은 한글 표현에 매우 능숙하였다. 한글본 <북정동유록>도 이세택이 직접 한글로 창작할 가능성이 있다. <북정동유록>이 본래부터 한글로 창작된 것인지, 아니면 한문으로 기록한 것을 추후에 한글로 번역한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따져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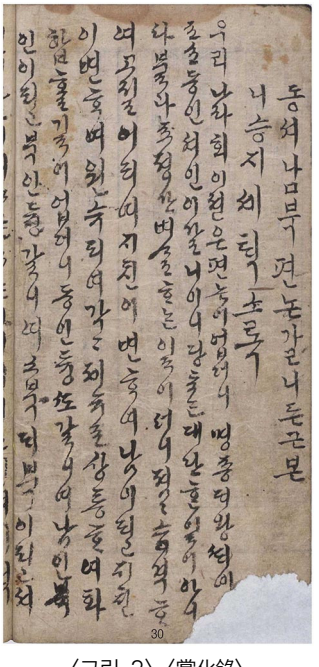
이세택의 또 다른 저술인 『洛窩拙記』는 1750년 2월 21일 會試에 입격한 때부터 1753년 8월 29일 明政殿 應製試에서 장원이 되기까지 4년동안 성균관에서 생활했던

12) 이에 대해서는 한글본 『퇴계선생연보』를 처음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김광순의 해제를 참고.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퇴계선생연보국역본』, 한국출판사,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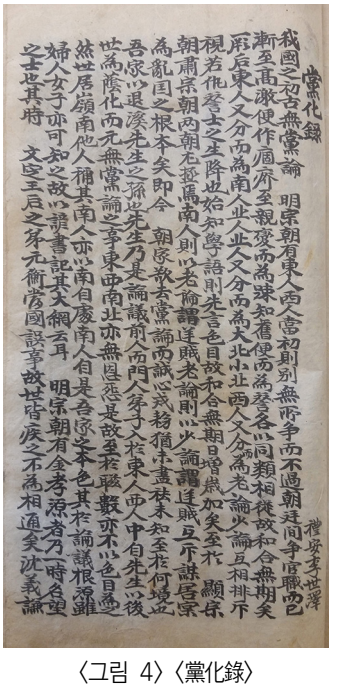
13) 李晩耆,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退溪先生年譜跋」, 『퇴계선생연보국역본』, 한국출판사, 1992.

경험을 기록한 일기이다. 아울러 영조의 물음에 대답한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洛窩’가 李世澤의 또 다른 호 중의 하나로 짐작된다. 이 책은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14]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이세택의 글로 <黨化錄>이 있다. <黨化錄>은 조선시대 당론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으로, 남인의 입장에서 본 당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세택의 이 글이 한글로 번역되어 영남 지방 사대부 여성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3〉〈黨化錄〉
(『別下冊』에 수록)



〈그림 4〉〈黨化錄〉
(『國朝歷年士禍錄』에 수록)

14) 『洛窩拙記』에 대한 설명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지목록을 참고한 것이다. 『낙와졸기』는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실물을 열람하지 못하여 이 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한글본의 제목은 「동셔남북 편논갈니든 근본」이라고 적혀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別下册』 속에 실려 있다. 제목 아래에 '니승지 세틱 소록'이라고 하여 이세택의 저술임을 밝혀 놓았다. 이세택이 한문으로 쓴 원래의 글은 고려대도서관에 소장된 『國朝歷年士禍錄』에 수록되어 있다.[15] 번역을 마친 다음에 필사자가 필사기를 적어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 신유 칠월일의 약악 슬코 견비통 고극 간신 스ᄂᆞ니 며ᄂᆞ리 ᄯᆞᆯ 돌여가며 앗겨 볼지어다. 조희 업셔 낙지 주어 글시 시죵 여일치 못타인 불가 두리 노ᄅᆞ 낙ᄌᆞ 무슈ᄒᆞ니 볼 슈 업도다. 본ᄃᆡ 잇던 ᄎᆡᆨ은 님 집 가져가고 ᄯᅩ 벗겨ᄂᆞ니라.[16]

신유년 7월에 필사하였으며, 며느리와 딸 등에게 읽히기 위해 번역하였다고 밝혔다. 신유년은 1801년 혹은 1861년으로 짐작된다. 당쟁에 관한 기록이 영남 지방의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던 사정을 짐작케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앞서 살펴본 <북정동유록>의 필사 기록, 한글본 <퇴계선생연보> 등과 함께 이세택의 저술이 영남지방 사대부 여성들에게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끝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釣隱稡言』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이세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모아놓은 책으로, 수록 인물로는 沈㲉, 洪晟, 李萬恢, 金朝潤, 嚴璹, 李命俊 등이 있다. 이세택의 삶과 교유 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Ⅲ. 〈북정동유록〉의 작품세계

<북정동유록>에서 주목할 부분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

15) 고려대소장본 『國朝歷年士禍錄』에는 다음 글이 수록되어 있다. 雪壑謏聞(李大期), 御製六臣致祭文, 黨化錄, 吳光運表文, 上宰相啓(吉再), 吳斗寅上疏(吳斗寅), 朴應敎傳, 旬五志上抄選 등.

16) 편자 미상, 『別下册』,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소장본.

유람과 여행의 흥취이다. 작자는 북평사의 자격으로 함경도 일대를 여행하였고 돌아오는 도중에는 금강산에 들러 명소들을 두루 탐방하였다. 함경도의 명소 및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을 유람하면서 작자는 여행의 과정 및 빼어난 경관에 대해 핍진한 묘사와 참신한 비유 등을 활용하여 유람 공간의 현장감 및 작가의 흥취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가에게 있어 금강산을 비롯한 산수 자연은 탐승과 탈속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점이 <북정동유록>에서 우선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는 조선 왕실 유적에 관해 관심을 보인 부분이다. 이세택은 함경도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조선 왕실의 개국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 유적에 관해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자는 각종 설화, 일화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을 다양하게 끌어들임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있다. 셋째는 함경도 지역민과 관련된 중앙 관료로서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하였던 변방 지역인 함경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작자는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았으며, 그곳의 풍속과 생활을 직접 접하였다. 작자는 북평사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관료로서의 자기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함경도 지역민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1. 탐승과 탈속의 공간: 핍진한 묘사와 현장감 및 비유의 활용

이세택은 <북정동유록>에서 함경도와 강원도를 지나가면서 주변의 이름난 명소를 유람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작자는 험준하고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는 과정이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참신한 비유와 핍진한 묘사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아울러 산수 유람 속의 청정하고 탈속한 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부각하였다.

> 다시 텰삭(鐵索)을 붓잡아 ᄂᆞ려와 또 다시 이삼 니ᄅᆞᆯ 힝ᄒᆞ여 큰 골을 건너 창벽층(蒼壁層)으로 보고 위름(危懍)ᄒᆞᆫᄃᆡ 간신히 올나가 가셥봉(迦葉峰)의 다ᄃᆞᄅᆞ니 그 놉희 슈미ᄃᆡ(須彌臺)의셔 더 놉여 표묘(縹緲)히 구름 속의 드러가 아래ᄅᆞᆯ 싸히 업고 우흐로 하ᄂᆞᆯ을 ᄆᆞ지ᄂᆞᆫ ᄃᆞᆺᄒᆞᆫ디라. 봉 허리로 반연(攀緣)ᄒᆞ여 위이굴곡(委迤屈曲)ᄒᆞ여 져근 길히 잇거ᄂᆞᆯ 길흘 ᄯᆞ라 졈졈 ᄂᆞ려가 길히 궁진(窮盡)ᄒᆞᆫᄃᆡ 다ᄃᆞᄅᆞ매 졀벽이 깟가 셰운 ᄃᆞᆺᄒᆞ고 다ᄅᆞᆫ 길히 업서 텰삭 ᄒᆞ나히 아래 드

리여시니 그 위틔(危殆) ᄒᆞ기 니ᄅᆞᆯ 것 업더라. 큰 줄과 츩덩웅을 ᄆᆡ여 하인으로 ᄒᆞ여곰 텰삭의 덧ᄆᆡ야 아래로 드리오고 반연(攀緣)ᄒᆞ여 ᄂᆞ려가니 또 졀벽층이 되엿ᄂᆞᆫᄃᆡ 듕간으로 실 ᄀᆞᆺ흔 길히 통ᄒᆞ엿거ᄂᆞᆯ 그 길흘조차 암ᄌᆞ(庵子)의 다ᄃᆞᄅᆞ니 디셰(地勢) 고상ᄒᆞ고 긔이ᄒᆞ여 좌우의 흰 셕봉(石峰)이 나렬ᄒᆞ여 혹 긴 병풍(屛風) ᄀᆞᆺᄒᆞ며 혹 긔(旗)와 일산(日傘) ᄀᆞᆺᄒᆞ며 혹 창검(槍劍)을 뭇거 셰온 ᄃᆞᆺᄒᆞᆫᄃᆡ 치식(彩色) 구름과 블근 노을이 장졈(粧點)ᄒᆞ여 비단댱(緋緞帳)을 두른 ᄃᆞᆺ 암ᄌᆞ 압히 져근 굴이 잇고 금부텨 ᄒᆞ나흘 안쳣ᄂᆞᆫᄃᆡ ᄃᆡ(臺) 젼면(前面)으로 만인졀벽(萬仞絕壁)이 샥닙(削立)ᄒᆞ고 ᄂᆞᄂᆞᆫ 폭포(瀑布)ᄂᆞᆫ 그 가온대 흐르니 은하쉬(銀河水) 구텬(九天)으로셔 써러딜 ᄃᆞᆺᄒᆞ고 셔로 ᄇᆞ라보매 ᄀᆡ심ᄃᆡ(開心臺)와 방광ᄃᆡ(放光臺)ᄅᆞᆯ 녁녁히 보ᄂᆞᆫᄃᆡ 솔과 계슈(桂樹)와 쳑촉(躑躅)이 바회틈의 간간이 잇ᄂᆞᆫ 거시 다 앙장긔괴(昂藏奇怪)ᄒᆞ여 몃 빅년을 디딘 줄 모ᄅᆞᄃᆡ 놉희 블과 두어 자히러라.[17]

작자는 三藏巖, 開心臺, 成佛菴을 지나 須彌臺에 오른 다음 迦葉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수미대보다 높이 솟은 가섭봉 위에 서 있으니 마치 “구름 속의 드러가 아래ᄅᆞᆯ 싸히 업고 우흐로 하ᄂᆞᆯ을 ᄆᆞᆫ지ᄂᆞᆫ ᄃᆞᆺᄒᆞᆫ디라”라고 비유하였다. 아래로 밟을 땅이 없는 구름 속에서 하늘을 만지는 듯하다는 참신한 비유의 활용을 통해 작자가 서 있는 가섭봉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독자들은 실감할 수 있다. 유람 공간의 현장감을 실감 있게 묘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는 서술을 진행하였다. 정상 꼭대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봉우리 허리를 구불구불 돌아서 내려오는데 길이 다한 곳에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며 아래로 쇠사슬 하나만이 드리워져 있는 곳을 만났는데, 큰 줄과 칡덩굴을 쇠사슬에 덧매어서 간신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

가섭봉에서 내려와 암자에서 바라다 본 풍경—흰 석봉이 나열한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 작자는 다수의 比喩를 連用하였다. ‘긴 병풍’, ‘旗와 日傘’ 같기도 하고, 또는 ‘창과 칼을 묶어 세워놓은 듯하다’고 표현하였다. 흰 석봉 주위로 채색 구름과 붉은 노을이 ‘粧點’하여 마치 비단 휘장을 두른 듯하다고 비유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粧點’이라는 표현은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이다. 石峰의 흰 빛깔과 대비를 이루어 노을의 붉은 빛, 구름의 채색빛이 서로 어울려 색채감을 더해주었다.

17)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4일.

위에서 보듯 <북정동유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는 언어 표현의 핍진성과 현장감 및 참신한 비유의 활용이다. 산수 경관을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동감 있고 살아 있는 형상의 창조에 작자는 특히 힘을 기울였다. 직접적 관찰과 체험의 현장성, 그리고 세부적 묘사의 충실성, 참신한 비유의 활용 등을 통해 작자는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을 마주한 자신의 감흥과 정취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십오일 아ᄎᆞᆷ의 창을 열고 산ᄉᆡᆨ을 둘너보니 쳔암만학의 ᄇᆡᆨ운이 반은 ᄌᆞᆷ겻고 비 온 후 신나모 단풍이 더옥 션명ᄒᆞ여 홍광이 고봉간의 장졈ᄒᆞ여시니 졍히 고은 겨집이 새ᄇᆡᆨ 단장을 새로 홈 ᄀᆞᆺ더라.[18]

위의 인용문 또한 참신한 비유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9월 15일 금강산 正陽寺에서 맞이한 아침 풍경을 묘사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작자는 창문을 열어 금강산 산색을 둘러본다. 그때 작자의 눈에 비친 것은 흰 구름이 반쯤 잠겨 있는 골짜기, 그리고 붉게 물든 신나무 단풍나무이다. 신나무는 단풍나무의 일종으로, 계곡 주변 또는 산기슭에 자라는 낙엽 떨기나무 또는 작은키나무이다. 더욱이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쳐서 붉은 단풍의 빛깔은 더욱 선명하다고 하였다. 붉은 단풍과 흰 구름의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데, 작자는 이를 '홍광(紅光)이 고봉간(高峰間)의 장점(粧點)'하였다고 표현했다. 높은 봉우리 사이로 붉은 빛이 서려 있는 풍경을 인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작자는 이 같은 인상적 광경을 "고은 계집이 새벽 단장을 새로 한 것"으로 비유하였다.

> 믈을 격ᄒᆞ여 보덕굴(普德窟)을 ᄇᆞ라보니 구름 ᄃᆞ리와 돌길히 반공(半空)의 ᄃᆞᆯ녓고 그 우ᄒᆡ 돌섬이 삼십ᄉᆞ층이오 층 우ᄒᆡ 졀벽을 님ᄒᆞ여 바회예 붓쳐셔 암ᄌᆞ(庵子)ᄅᆞᆯ 지엇ᄂᆞᆫᄃᆡ 암ᄌᆞ 녑흘 바회머리의 구리 쇠기둥을 셰워시니 놉희 ᄇᆡᆨ여 쳑(尺)이오 기둥 우ᄒᆡ 져근 두간 집을 지어 반공의 표묘(縹緲)ᄒᆞ니 혜ᄃᆡ 극히 긔이(奇異)ᄒᆞ고 그 집 안ᄒᆡ 븍녁흐로 바회ᄅᆞᆯ 당ᄒᆞ여 져근 굴이 이셔 관음(觀音) 부텨ᄅᆞᆯ 안쳐시니 집이 구리 쇠기둥 우ᄒᆡ 걸니인ᄃᆡ 업서 큰 쇠사슬노 두로 얼거 뒷 졀벽의 박아시니 집이 샹ᄒᆡ(上下) 운동(運動)ᄒᆞ여 짐대 우ᄒᆡ 풍경

18)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5일.

> 든 형상 ᄀᆞᆺ고 사ᄅᆞᆷ이 그 집 안히 왕ᄂᆡ(往來)ᄒᆞᆯ 제 그 집이 운동ᄒᆞ여 울허딜 ᄃᆞᆺᄒᆞᄃᆡ 쇠사슬의 의지(依支)ᄒᆞ여 퇴븨(頹圮)ᄒᆞᄂᆞᆫ 일이 업더라. 그 집 뒤 바회층의 져근 ᄃᆡ(臺)가 일홈은 관음ᄃᆡ(觀音臺)라.[19]

普德窟을 묘사한 대목이다. 보덕굴은 만폭동에 위치해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 위에 3층 누각이 나무 위의 새둥지처럼 걸려 있다. 백 척이 넘는 쇠기둥에 의지해 두 간 암자를 지은 위태로운 모습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상세한 묘사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참신한 비유의 활용이다. 쇠기둥에 의지한 채 허공 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광경을 작자는 '짐대 위의 풍경 단 형상 같다'고 비유하였다. '짐대'는 사찰에서 幢을 거는 깃발대를 말하며, 風磬은 처마 끝에 매단 작은 종이다. 쇠기둥에 매달린 보덕굴의 모습을 높이 솟아있는 짐대 끝에 작은 풍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보덕굴 암자의 위태로운 풍경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작자는 짐대 위에 매달려 바람부는대로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풍경에 비유하였던 것이다.

빼어난 산수 자연을 마주한 흥취와 감흥을 작자는 참신한 언어 감각을 통해 표현하였다고 하였는데, 일출 장관을 묘사한 다음 인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작자는 일출의 장관을 여러 곳에서 묘사하였다.[20]

> 삼십일 새ᄇᆡ 니러 됴일헌(朝日軒)의 나 안자 일출(日出)을 보니 텬리 ᄉᆞ방(千里四方)이 먹칠ᄒᆞᆫ ᄃᆞᆺ 어두온ᄃᆡ 동텬(東天)의 블근 빗치 다홍댱(-紅帳)을 틴 ᄃᆞᆺᄒᆞ고 바다믈이 반을 싸려 셔빡은 검고 어두운ᄃᆡ 동으로 쥬홍 ᄌᆡᆼ반 ᄀᆞᆺᄒᆞ여 홍광(紅光)이 뽀여 사ᄅᆞᆷ의 ᄀᆞᆺ과 오시 다 진홍빗 ᄀᆞᆺ더라. 져근덧 ᄉᆞ이의 졈졈 담홍(淡紅)ᄒᆞ여 누ᄅᆞᆫ 빗치 되고 홍운(紅暈)이 ᄒᆡ샹(海上)으로셔 소사 다 믈형(物形)이 ᄃᆡ니 혹 블근 일산(日傘) ᄀᆞᆺ고 혹 블근 술위 ᄀᆞᆺ고 혹 뇽긔(龍旗) ᄀᆞᆺᄒᆞ여 쳔ᄐᆡ만상(千態萬象)이라. 졍히 왕감쥬(王弇州)의 일관봉(日觀峰)의셔 긔록(記錄)ᄒᆞᆫ 것 ᄀᆞᆺ더라. 텬ᄉᆡᆨ(天色)이 졈졈 담(淡)ᄒᆞ며 ᄒᆡᄉᆡᆨ(海色)이 졈졈 누ᄅᆞ러 그제야 날이 바다흐로셔 소사 올ᄅᆞᄂᆞᆫ 거시 황금 술위박희 ᄀᆞᆺ더라. 하ᄂᆞᆯ의 오ᄅᆞᆯ 적은

---

19)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3일.

20) 7월 30일 조일헌 일출, 9월 19일 강원도 고성의 귀봉 일출, 9월 27일 영해 일출을 다루었으며, 9월 8일 군산 일출은 날씨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

압히 져근 셤이 ᄀᆞ리여 오히려 쾌히 보디 못ᄒᆞ니 애ᄃᆞᆫ더라.[21]

십구일 ᄃᆞᆭ 운 후 남현노(南玄老)로 더브러 귀봉(龜峰)의 올나 일출(日出)을 볼 ᄉᆡ 바다 하ᄂᆞᆯ이 묘망(渺茫)ᄒᆞᆫᄃᆡ 별이 졈졈 드믈고 동방(東方)의 ᄇᆞᆯ근 빗치 안개 ᄀᆞ티 소사 올나 반텬(半天)의 밋ᄎᆞ매 바다믈이 ᄒᆞᆫ결ᄀᆞ치 븕기ᄅᆞᆯ 진홍(眞紅) ᄀᆞᆺ더니 져근덧ᄒᆞ여 담홍(淡紅)ᄒᆞ여 황금빗치 되고 홀연 블근 일산(日傘)과 긔(旗)와 창검(槍劍)이 바다 우히 나렬(羅列)ᄒᆞ여 소사 오ᄅᆞ며 그제야 황금술위 ᄀᆞᆺᄒᆞ여 바다 밋흐로셔 죠용히 올나와 물과 하ᄂᆞᆯ의 디경의 다ᄃᆞᄅᆞ매 ᄇᆞ람이 업시며 믈결이 뒤누으며 만경대양(萬頃大洋)이 홍용(洶湧)ᄒᆞ여 어룡(魚龍)이 분주(奔走)ᄒᆞ여 ᄂᆞ솟더라. 무수히 축물(逐物)ᄒᆞ다가 비로소 바다흐로 써나 하ᄂᆞᆯ의 오ᄅᆞᆯ 제(際)ᄂᆞᆫ 쥬홍 ᄌᆡᆼ반 ᄀᆞᆺᄒᆞᆫ 구름이 날을 밧드러 하ᄂᆞᆯ의 붓친 후 블근 구름이 다 거두치고 바다 믈결이 자며 비로소 텬디(天地) ᄇᆞᆯ가디니 이 째ᄂᆞᆫ 이 즈음 동틀 째러라.[22]

첫째 인용문은 7월 30일 朝日軒에서 새벽 일출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朝日軒은 함경도 吉州 남쪽 90리에 위치한 城津鎭에 있다. 그 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서 해돋이와 달돋이의 장관과 고래가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함흥과 북관 일대의 대표적 명소의 하나이다. 작중화자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일출의 장관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처음에는 한쪽은 검고 다른 한쪽은 빛이 나다가 이어서 일산, 붉은 수레, 깃발 같은 것이 보이다가 마침내 바다 위로 해가 솟아 일어났다. 비유의 활용이 참신하며, 시간별 변화상을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인용문은 강원도 고성에서 본 일출 장면을 다루었는데, 앞서 본 인용문과 같이 일출의 장관을 매우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였다. 다양한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해가는 해돋이의 모습을 실감 있게 그려낼 수 있었다. '안개 같이', '붉은 일산과 기와 창검이 나열', '황금수레 같으며', '주홍 쟁반 같은 구름' 등의 비유가 그것이다.

첫째 인용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작자 스스로 일출 장면을 明나라 後七子의 대표적 문인인 王世貞(1526-1590)의 「游泰山記」에 나오는 것에 비교하였다는 점이

21)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7월 30일.
22)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9일.

다. 王世貞은 泰山을 세 번 등정하고 쓴 기행문 「유태산기」를 남겼는데, '일관봉에서 기록한 것 같더라'에서 말한 일관봉은 바로 태산의 주봉이다. 王世貞이 일관봉 일출 장면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고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오경이 될 무렵 日觀峰으로 지팡이를 짚고 올랐다. 얼마 후에 동쪽의 빛이 조금 보이더니 나와 종자의 옷이 붉어졌다. 石室과 여러 비석들이 모두 다 붉어지더니 한줄기 붉은 빛이 동쪽 어두컴컴한 곳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산 뒤쪽은 여전히 컴컴한데 닭은 벌써 세 번 울었다. 다시 조금 지나자 해가 서서히 올라오니, 구름과 무지개, 황금 줄기 푸른 깃발이 마치 호위하는 듯하였다.[23]

왕세정은 靑州에 재임하고 있을 때에 泰山을 세 차례에 걸쳐 유람하였고, 태산의 명승과 역사 유적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태산의 유명한 경관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日觀峰에서 雲霧 속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이 특히 유명하였으니, 이를 '旭日東昇'이라고 하였다. 「유태산기」는 태산에 오른 세 번의 경험을 차례대로 서술했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 가운데 세 번째 경험을 기록한 부분이다. 1559년에 세 번째로 태산에 오른 왕세정은 일출 장면을 묘사하면서 주변 경관의 변화를 부각시켰다. 이것은 이세택의 일출 장면 묘사와 유사하다. 먼저 동쪽에서 빛이 나와 옷을 붉게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주변의 石室과 여러 비석들도 모두 붉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줄기 붉은 실 같은 빛이 어두컴컴한 곳으로부터 일어나면서 환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해가 솟아오르는데, 마치 구름과 무지개, 황금 줄기 푸른 깃발이 마치 호위하는 것 같았다. 황금 줄기 푸른 깃발[金支翠旗]이라는 말은 樂器에 부착한 장식품을 가리키는데, 杜甫의 「渼陂行」에 나오는 구절 "황금 줄기 푸른 깃발의 빛이 있는 듯 없는 듯해라[金支翠旗光有無]"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

23) 王世貞, 「游泰山記」, 錢仲聯 編, 『王世貞文選』, 蘇州大學出版社, 2001, "將五鼓, 杖策日觀峰. 頃之, 東方色微辨, 而顧余及從者衣洞赤. 已睹石室及諸碑碣盡赤, 乃見一線赤從東黯霽中起, 顧山之背則猶昏, 然雞蓋三喔也. 又頃之, 日輪徐上, 雲君霓師金支翠旗, 仿佛扈從."

아래로 졀벽층의 텰삭(鐵索) 열나문이 드리여시니 그 줄를 붓들고 겨온 ᄂᆞ리매 ᄯᅩ 돌층 이ᄂᆞᆫ 바닥 너비 만혼 거시 비슥이 쳔만 댱 졀학(絕壑)을 님ᄒᆞ여 그리로 반연(攀緣)ᄒᆞ여 수빅 보를 가니 ᄯᅩ 만인(萬仞) 졀벽이 압흘 당ᄒᆞ엿고 텰삭 수십 댱이 드리여시니 일노조차 공듕(空中)으로 올나가 칼노 ᄀᆞᆺ혼 우흐로 ᄯᅩ 십여 보를 가 쇠사슬 십여 댱을 붓잡고 비로소 망고ᄃᆡ(望高臺)를 올나가ᄂᆞᆫᄃᆡ 혼번 발을 차실(蹉失)ᄒᆞ거나 혼번 손을 그릇 노흐면 억만 댱 졀학의 써러뎌 시테(屍體)도 ᄎᆞᆺ디 못홀디니 텰삭을 님ᄒᆞ여 반복(反復) ᄉᆞ량(思量)ᄒᆞ니 결단코 위ᄐᆡ(危殆)ᄒᆞ니 ᄯᅩ혼 ᄃᆡ샹(臺上)의 올나 안목의 뵈ᄂᆞᆫ 거시 이곳의셔 별노 더홀 거시 업ᄂᆞᆫ 고로 드ᄃᆡ여 혼가지로 뎡ᄒᆞ고 셕벽(石壁)을 비겨 다만 ᄇᆞ라보매 구름 ᄀᆞᆺ혼 뫼봉은 하ᄂᆞᆯ의 소ᄉᆞᆺ낫고 놉흔 졀벽은 옥(玉)을 뭇거 반텬(半天)의 다핫ᄂᆞᆫᄃᆡ 의의(依依)히 ᄉᆡᆼ학(笙鶴) 소ᄅᆡ 그 ᄉᆞ이의셔 들니니 신션(神仙)의 무리 분명 이 가온대 잇ᄂᆞᆫ디라. 서로 블너 더블너 말홀 ᄃᆞᆺᄒᆞ더라.[24]

금강산 松蘿庵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작자는 獅子項을 지나 望高臺로 오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실감 있게 묘사하였다. 쇠사슬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한발 한발 위태로운 걸음을 옮겨야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자칫 발을 헛딛거나 손을 놓게 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혼번 발을 차실(蹉失)ᄒᆞ거나 혼번 손을 그릇 노흐면 억만 댱 졀학의 써러뎌 시테(屍體)도 ᄎᆞᆺ디 못홀디니”라는 표현은 등정의 과정이 매우 위험천만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작중화자는 천만길이 되는 깎아지른 절벽 길을 나무뿌리를 더위잡기도 하고 쇠사슬에 몸을 지탱하여 힘겹게 오르내려야만 하였다.

이처럼 깎아지른 절벽을 구불구불 돌아서 간신히 도착한 곳은 바깥 속세와는 절연된 신선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작중화자는 빼어난 산수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신선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무수히 오ᄅᆞ고 여러 슌 쉬여 비로소 봉(峰) 우ᄒᆡ 다ᄃᆞᄅᆞ니 셕ᄃᆡ 두어 간은 ᄒᆞ고 측빅나모 두어히 앙장긔괴(昂藏奇怪)ᄒᆞ여 봉 우ᄒᆡ 셧ᄂᆞᆫᄃᆡ 굽어보니 구룡연(九龍淵) 우ᄒᆡ 믈 ᄂᆞ려 오ᄂᆞᆫ 거시 층층이 폭푀되고 곳곳이 모시 되여 믈읫 아홉 폭포와 아홉 모시 다 ᄒᆞᆫ 모양이오. 돌빗치 희고 못믈이 푸ᄅᆞ러 긔이(奇異)

24)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5일.

ᄒᆞ고 그 우히 셕문(石門) 잇셔 널고 긔이ᄒᆞ여 은은히 신션(神仙)의 무리 구름 ᄉᆞ이의 잇ᄂᆞᆫ ᄃᆞᆺᄒᆞᄃᆡ ᄉᆞ면을 반연ᄒᆞ여 드러갈 ᄉᆡ 비록 ᄂᆞᄂᆞᆫ 젓납이라도 통ᄒᆞᆯ 길 업더라.[25]

암ᄌᆞ 가온대 슈좌(首座) 즁 ᄒᆞ나히 이시니 일홈은 혜튱이라. 졀곡(絕穀)ᄒᆞ고 믈만 마시고 포단(蒲團) 우히 단졍히 안자시니 미목(眉目)이 쳥슈(淸秀)ᄒᆞ고 ᄉᆞᆯ빗츤 마ᄅᆞᆫ 나모 ᄀᆞᆺᄒᆞ여 연하 긔운이 업더라. 더브러 산듕경(山中景)을 말ᄒᆞ니 말ᄉᆞᆷ이 됴코 신이(神異)ᄒᆞ여 미미히 드르매 슬흔 줄 모ᄅᆞᆯ네라. 암ᄌᆞ 안히 졍결ᄒᆞ고 유벽ᄒᆞ야 ᄒᆞᆫ 뎜 딘애(塵埃) 업고 탁ᄌᆞ 우히 노힌 블긔(佛器)와 경칙(經冊)이 다 졍제ᄒᆞᆫᄃᆡ 화로의 향을 픠워 방안히 향취 옹비ᄒᆞ고 후면으로 도라보아도 ᄒᆞᆫᄃᆡ 곡셕 둔 ᄃᆡ 업ᄉᆞ니 진실노 신션(神仙)의 집인 줄 알너라.[26]

십여 리ᄅᆞᆯ 힝ᄒᆞ여 ᄂᆡ원통암(內圓通庵)의 다ᄃᆞᄅᆞ니 암ᄌᆡ 웅호봉(熊虎峯) 밋히 잇고 압흐로 공뇽담을 ᄇᆞ라보ᄂᆞᆫᄃᆡ 집이 졍혀(靜虛)ᄒᆞ고 슈좌(首座) 즁 두어히 흰 곳갈의 납의(衲衣)ᄅᆞᆯ 닙고 문 밧긔 나와 마ᄌᆞ니 ᄇᆞ라보매 이 진짓 신션(神仙)이러라. 암ᄌᆞ의 좌뎡(坐定)ᄒᆞᆫ 후 둘너보니 즁의 ᄉᆡᆼ애(生涯) 쇼연(蕭然)ᄒᆞ여 일졈(一點) 쇽ᄐᆡ(俗態) 업고 향노의 ᄌᆞ란 향초ᄅᆞᆯ ᄂᆡ신 ᄃᆞᆺᄒᆞ여 향취 ᄀᆞ득하고 ᄯᆞᆯ 압히 구슬플과 계슈남기 각각 긔이(奇異)ᄒᆞ여 이ᄅᆞᆯ ᄃᆡᄒᆞ매 듯ᄒᆞᆫ ᄉᆡᆼ각이 쇼연ᄒᆞ더라.[27]

첫 번째 인용문은 구룡연 주변의 신비로운 풍광을 세심하게 묘사하면서 그곳이 마치 신선 무리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다. 원숭이도 지나갈 수 없는, 인적이 끊어진 저 너머의 청정한 공간을 부각시키면서 작자는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광경을 찬탄하였다. 둘째와 셋째 인용문에서 작자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금강산 암자에서 살아가는 승려의 모습을 신선 같다고 칭송하였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한 암자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승려와 그의 소박한 삶을 신선이 사는 탈속적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작자는 눈 앞에 마주한 승려를 신선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공간을 힘들게 탐승을 하고 그같은 공간을 신선이 사는

25)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9월 10일.
26)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3일.
27)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2, 9월 14일.

탈속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은 금강산 뿐만 아니라 七寶山, 國島 등을 유람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28] 이 점은 釣隱의 생활을 추구했던 이세택의 의식 지향과도 연관된다고 짐작된다. 영남 남인으로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대사헌 등의 관직에 올랐지만 고향에서의 한적한 삶을 희구하였던 그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왕실 유적에 대한 관심: 흥미로운 설화의 대폭적인 활용

<북정동유록>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또 하나는 조선 왕실 유적에 관한 관심을 보인 부분이다. 이세택은 함경도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조선 왕실의 開國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 유적에 관해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자는 각종 설화, 일화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을 다양하게 끌어들임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함경도 유적지 방문 이외에 금강산, 경포대 등 다른 지역 유람에서도 나타난다. <북정동유록>이 보여주는 주요한 서술 방식의 하나가 설화의 대폭적인 활용이다. 물론 함경도 지역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여러 기록들에도 설화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세택의 경우 설화가 다양한데다가 그 내용 또한 매우 상세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설화 활용의 사례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든 봉머리 서로 높혀셔 가히 쒸여 건널 듯ᄒᆞᆫᄃᆡ 그 두 ᄉᆞ이가 굴헝이 깁고 머러 쳔만 댱이나 ᄒᆞ고 ᄯᅩᄒᆞᆫ 반연ᄒᆞ여 오ᄅᆞᆯ 곳이 업ᄉᆞ니 셰샹이 니ᄅᆞ기ᄅᆞᆯ “그 봉 우ᄒᆡ 각각 신션이 딕희여 잇다.” ᄒᆞ더라.(칠보산 유람, 8월 1일); “ᄇᆡᄅᆞᆯ 둘러 나와셔 ᄲᅡᆨ을 도라쳐 도망셕을 디나 셤 우흘 우러러보니 운애묘명(雲靄杳冥)ᄒᆞᆫᄃᆡ 의희희 신션의 왕ᄂᆡ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볼 듯ᄒᆞ더라.” (國島 유람, 9월 7일).

〈표 1〉 설화 활용 사례

날짜	설화	여행 지역	비고
7월 20일	釋王寺 緣起 설화	함경도 안변	
8월 18일	咸興差使 朴淳 설화	함경도 영흥 용흥강	
8월 28일	太祖와 太祖妃 설화	함경도 안변	
9월 11일	楡岾寺 緣起 설화	금강산 유점사	
9월 13일	無學大師 설화	금강산 묘길상	
9월 15일	麻衣太子 설화	금강산 옥경대	
9월 22일	鏡浦湖 설화	강릉 경포대	

먼저 처음 함흥에 도착했을 때에 작자가 느꼈던 점에 대해 살펴본다.

> 오전 함흥(咸興) 다ᄃᆞᄅᆞ니 셩 밧 대강(大江)은 셩천강(城川江)이라. 강샹(江上)의 만세괴(萬歲橋) 이셔 넙의 서나 간이나 ᄒᆞ고 기픠 뉵칠 니니 이젼 태조대왕(太祖大王)이 ᄂᆞ히신 ᄯᆞ히니 국ᄂᆡ(國內)예 다시 업ᄂᆞᆫ 장ᄒᆞᆫ ᄯᆞ히러라. 산쉬 명슈광낭(明秀曠朗)ᄒᆞ여 한양(漢陽)과 방블ᄒᆞ고 셩ᄂᆡ(성내) 셩외(성외) 녜 녀염(閭閻)이 번셩(繁盛)ᄒᆞ여 도셩(都城)과 다ᄅᆞ디 아니ᄒᆞ고 셩샹(城上)의 강을 님ᄒᆞ여 낙민누(樂民樓)히 이시니 놉고 장녀(壯麗)ᄒᆞ여 평양(平壤) 년광뎡(練光亭)과 ᄀᆞᆺ다 ᄒᆞᄃᆡ 안계(眼界) 통활(通濶)ᄒᆞ여 막힌ᄃᆡ 업기ᄂᆞᆫ 년광뎡의셔 더으더라.[29]

위의 인용문은 함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록이다. 함흥은 태조가 태어난 지역으로, 국내에서 다시없는 장한 땅이라고 하였다. 조선 개국의 터전이었던 함흥에 온 작자는 함흥 땅이 서울 도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서로 비교를 하였다. 산수 자연이 빼어나고, 성 내외로 번성한 도시의 활기는 한양과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함흥의 명소인 樂民樓는 우리나라 3대 누각의 하나인 연광정에 못지않다고 하였다. 더욱이 낙민루의 경우 막힘없이 트여있는 모습이 연광정보다 더 뛰어난 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작자는 함경도 일대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유적을 두루 탐방하였다. 함경도 왕실사적 가운데 대표적인 유적은 咸興本宮, 永興本宮, 永興의 濬源殿, 安邊의 釋王寺이다.

29)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7월 24일.

먼저 석왕사 관련 설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 태죄 드ᄃᆡ여 셜봉산의 가 ᄎᆞᄌᆞ시니 깁흔 산듕의 인뎍(人跡)이 업ᄂᆞᆫᄃᆡ 흙집 속의 늘근 즁이 울연히 안잣거ᄂᆞᆯ 태죄 나아가 졀ᄒᆞ여 갈오시ᄃᆡ "딘토(塵土)의 쳔인(賤人)이 의심된 일을 겨도단ᄒᆞ랴 청ᄒᆞ노니라." 그 노승이 홀연 흔연 ᄃᆡ왈 "의심된 일은 무ᄉᆞᆷ 일고?" 태죄 ᄃᆡ왈 "디난 밤의 ᄒᆞᆫ 꿈을 ᄭᅮ니 울허딘 집의 드러가 연목(椽木) 세 ᄒᆞᆯ 디고 나와 뵈니 그 어인 딩죄(徵兆)뇨?" 노승(老僧)왈 "연목 셋 딘 거ᄉᆞᆫ 님금왕 죄니 이ᄂᆞᆫ 비샹ᄒᆞᆫ 딩됴라." ᄒᆞ고 인ᄒᆞ여 태조ᄅᆞᆯ 이윽이 보다가 대경(大驚)왈 "그ᄃᆡ 진실노 범인(凡人)이 아니라 오라디 아냐 신민(臣民)의 님재되리니 금일 ᄂᆡ 말을 삼가 입 밧긔 ᄂᆡ디 말고 이 곳의 큰 뎔을 짓고 일홈을 셕왕ᄉᆞ(釋王寺)라 ᄒᆞ고 삼년ᄂᆡ 년ᄒᆞ여 오빅셩죄(五百僧齋)ᄅᆞᆯ ᄒᆞ면 ᄌᆞ연 음조(陰助)ᄒᆞᆯ 일 잇시리라."[30]

> 태죄 여긔셔 목조 상ᄉᆞᄅᆞᆯ 만나샤 장ᄉᆞᄅᆞᆯ 뎡티 못ᄒᆞ엿더니 나모ᄒᆞ던 죵이 압길히 나갓다가 수플 ᄉᆞ이의 안자 보니 ᄒᆞᆫ 즁이 져근 샹재ᄅᆞᆯ ᄃᆞ리고 길 가다가 귀쥐봉을 ᄀᆞᄅᆞ쳐 닐오ᄃᆡ "괴이ᄒᆞ다. 진실노 비샹ᄒᆞᆫ 뫼히러다. 범인은 대뫼 님자 ᄃᆡ디 못ᄒᆞᆫ디라." ᄒᆞ여 디나가거ᄂᆞᆯ 그 죵이 급히 드러와 태조긔 그 말을 알외니 태죄 상복을 버셔 ᄇᆞ리시고 그 즁을 ᄯᆞ라 함관녕의 다ᄃᆞ라 븟잡아 뫼ᄅᆞᆯ 치모로 청ᄒᆞ신대 그 중이 처엄은 ᄆᆞᆯᄒᆞ길 칭탁ᄒᆞ더니 이윽이 태조ᄅᆞᆯ 관샹ᄒᆞ고 흔연왈 "그ᄃᆡ 과연 이외 님자로다." ᄒᆞ고 ᄒᆞᆫ가지로 ᄂᆞ려와 ᄀᆞᄅᆞ치니 이ᄂᆞᆫ 졍화능이러라.[31]

첫 번째 인용문은 태조 등극과 관련된 釋王寺 창건 연기설화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했지만 불교 설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석왕사의 開國願刹 설화도 여기에 해당한다. 조선 개국세력은 태조 등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수세력을 흡수하기 이 같은 불교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釋王寺는 태조가 왕업을 이루기 위해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하던 곳이다. 여기에서 무학대사를 만났으며,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꿈을 무학대사가 해몽해

30)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7월 20일.
31)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16일.

준 곳이다. 태조 등극을 예언했던 이 설화는 다른 한글 기행문에도 등장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설화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략하게 설화의 줄거리만을 요약해서 제시하지 않고, 한 편의 긴 스토리를 가진 서사물로 제시함으로써,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흥미와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점이 여타 한글 기행문에 보이는 설화의 수용과 일정하게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李太祖求山地說話를 다루었다. 태조는 등극하기 전에 歸州洞 桓祖의 옛집에서 살았다. 이 설화는 태조의 부모 능인 정화릉에 관한 것이다. 정화릉은 조선 태조의 아버지 桓祖의 능인 定陵과 태조의 어머니 의혜왕후의 능인 和陵을 가리킨다.

작자인 李世澤이 석왕사, 정화릉 등과 같은 왕실 사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탐방했던 자신의 체험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숙종대로부터 정조대에 이르는 조선후기 왕실사적 현창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왕실 유적지는 조선 개국 때부터 성역화하여 보존 관리되었는데, 변방지대인 함경도 개발과 함께 '풍패지향'으로 일컬어졌던 함경도 일대 왕실 유적에 대한 현창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숙종대 이후이다.[32] 이 같은 배경 속에 영조대에 중앙관료로서 관직생활을 하였던 퇴계 후손 이세택은 북평사 근무차 함경도를 방문하였을 때에 왕실 유적에 큰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함경도 영흥 또한 왕실 유적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영흥본궁은 태조의 아버지 桓祖의 옛집이다. 이성계가 星祭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흥본궁이 창건된 것은 1396년(태조5)이며, 태조가 죽은 후에는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판을 봉안했다. 濬源殿[33]은 영흥본궁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태조의 태를 묻은 곳이다. 1396년(태조5)에 전각을 세우고 1443년(세종 25)에 태조 영정을 봉안했다.

---

32) 조선후기 왕실 유적의 현창사업과 관련해서 강석화, 「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강화」, 『규장각』 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등을 참고.

33) 濬源殿이라고도 하고, 璿源殿이라고도 하였음.

오 리 못 밋쳐션 뉵각(六角) 긔치(旗幟)와 연봉(延逢)을 다 길히 머믈오그 단긔(單騎)로 몬져 ᄌᆡ실의 드러가 텬닉과 가ᄉᆞᆯ 벗고 사모관ᄃᆡ(紗帽冠帶)로 뎐의 나아가 ᄉᆞ비(四拜)ᄒᆞ고 뎐 ᄂᆡ예 드러가니 비단당(緋緞帳)으로 둥둥히 드리웟고 뇽상(龍床) 우히 화샹(畵像) 족ᄌᆞ(簇子)ᄅᆞᆯ 거러시니 금벽(金碧)이 휘황ᄒᆞᆫᄃᆡ 무수ᄒᆞᆫ 즙믈 버린 거시 다 금옥금쉬(金玉錦繡)라 졀 ᄂᆡ 시어(侍御)ᄒᆞ신 모양이오. 화샹을 공경ᄒᆞ여 우러러 보오니 곤뇽포(袞龍袍) 닙으시고 옥ᄃᆡ(玉帶)ᄅᆞᆯ 씌여 겨신ᄃᆡ 뇽안(龍顔)이 그리 크시든 아니ᄒᆞ시ᄃᆡ 너른 니마와 놉흔 코와 ᄇᆡᆨ셕(白皙)ᄒᆞ신 ᄉᆞᆯ빗치오 눈섭은 그린 ᄃᆞᆺᄒᆞ시고 긴 눈의 안광(眼光)이 찬난ᄒᆞ여 사ᄅᆞᆷ의게 뽀여 감히 눈을 마초아 뵈옵디 못ᄒᆞ옵고 슈염이 셜픠여 낫낫치 딩긔 잇고 기픠 씌우히ᄂᆞᆫ 다히시더라.[34]

영흥에 있는 濬源殿을 답사했을 때의 모습이다. 작자는 준원전 안의 내부 모습과 봉안된 태조의 어진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작자는 같이 동행했던 무리들을 물리치고 풍악을 그치게 한 다음 경건한 자세로 홀로 준원전 안으로 들어갔다. 준원전에 봉안된 태조의 얼굴 모습을 작자는 특별히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크지 않은 얼굴, 넓은 이마, 높은 코, 흰 살빛, 그린 듯한 눈썹, 기다란 눈, 찬란한 眼光 등 태조의 어진을 핍진하게 그려내었다.

다음에 인용하는 咸興差使 朴淳의 설화는 다른 기행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박판츄(朴判樞)ᄂᆞᆫ 태조(太祖)와 포의(布衣) 적 친졀(親切)ᄒᆞᆫ 벗이매 셩심(誠心)으로 텬의(天意)ᄅᆞᆯ 감동(感動)ᄒᆞ려 ᄒᆞ여 함흥(咸興) 니ᄅᆞ러 태조(太祖)긔 뵈옵고 셔울 도라가시ᄆᆞᆯ 곤쳥(懇請)ᄒᆞ니 태죄 ᄯᅩᄒᆞᆫ 반기샤 허락ᄒᆞ시고 도라 보내시러니 뫼신 졔신(諸臣)들이 죽여지라 힘써 쳥(請)ᄒᆞ니 태죄 죵시(終始) 허락(許諾)디 아니시다가 박판츄 뇽흥강(龍興江)을 건너 ᄒᆞᆫ 이틀 길흘 남아 갈가시븐 후 비로소 졔신(諸臣)의 쳥(請)을 드ᄅᆞ샤 ᄉᆞ쟈(使者)ᄅᆞᆯ 칼 주어 믈으샤ᄃᆡ "네 박판츄ᄅᆞᆯ ᄯᆞ라 가 뇽흥강을 아니 건넛거든 이 칼노 버히고 건너갓거든 말나." ᄒᆞ여 겨시더니 박판츄 뇽흥강의 다ᄃᆞ라 급ᄒᆞᆫ 병을 어더 두어 날 돈치ᄒᆞ여 지테(遲滯)ᄒᆞ다가 수일 후야 나아 ᄇᆡᄅᆞᆯ 건너려 ᄒᆞ더니 ᄉᆞ쟤 다ᄃᆞ라 드ᄃᆡ여 버히니 몸이 반은 ᄇᆡ예 잇고 반은 뭇히 ᄂᆞ려디니 보ᄂᆞᆫ 쟤 통곡(痛哭) 아니리

34)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19일.

> 업더라. ᄉᆞ쟤 도라와 죽인 줄을 고ᄒᆞ니 태죄 크게 놀나 우시고 드ᄃᆡ여 “죽엄을 거두어 강샹(江上)의 장ᄉᆞ(葬事)ᄒᆞ라.” ᄒᆞ시고 일노 인ᄒᆞ여 도라가오시니 후인(後人)이 비(碑)ᄅᆞᆯ 셰워 이적ᄀᆞ지 졔(祭)ᄒᆞ더라.[35]

함경도 永興의 龍興江을 지나면서 작중화자는 이곳에 왔다가 죽임을 당한 朴淳을 떠올렸다. 용흥강 강가에 세워진 박순의 비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咸興差使 이야기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咸興差使는 조선 태종 이방원이 태조의 환궁을 권유하려고 함흥으로 보낸 差使를 일컫는 말이다. 함흥차사 박순의 이야기는 閔鼎重이 쓴 朴淳諡狀, 車天輅가 지은『五山說林』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경도 지역을 여행한 기록들에 이 설화가 인용된 경우는 흔하지 않다.[36] 그리고 이세택의 경우처럼 함경도 지역의 왕실 사적에 대해 자세한 여행 체험을 서술한 경우도 많지 않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설화는 박순의 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어 독자의 흥미를 더해준다. 태조는 어릴 적 친구였던 박순을 무사하게 보내기 위해 나름의 조처를 하였지만, 박순은 병이 걸리는 바람에 지체하여 결국 태조가 보낸 사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 같은 죽음의 극적인 전개가 특히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함흥차사 등을 포함해 민간 설화를 대폭 수용한 것은 한글로 작성된 <북정동유록>을 읽었을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욱 높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3. 함경도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함경도 지역은 조선시대 때에 경제적으로 낙후한 먼 변방으로 인식되었다. 중앙 관료로서 생활하였던 이세택은 북평사의 임무를 맡아 3개월 동안 함경도와 강원도를 공무 수행하였다.

---

35) 李世澤,『북정동유록』권1, 8월 18일.

36) 박순이 함흥차사로 파견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며 민간에서 이야기로서 구비 전승된 것이다. 이세택이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였는지, 혹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뉵노로 오랑캐 싸흘 통ᄒᆞ고 바다길노 일본을 통ᄒᆞ여시니 각별 방비ᄒᆞ여 딕희ᄂᆞᆫ 곳이로ᄃᆡ ᄒᆞᆫ 쳠사를 맛겨 군병이 녕셩ᄒᆞ고 인히 또ᄒᆞᆫ 됴잔ᄒᆞ니 가히 애둛더라. 쳠ᄉᆞ 허협이 나와 현알ᄒᆞ거ᄂᆞᆯ 시험ᄒᆞ여 딘법을 무ᄅᆞ니 그 ᄃᆡ답이 심히 통투(通透)티 못ᄒᆞ고[37]

바로 사마 ᄌᆡ필당(載筆堂)의 드러가 좌긔ᄒᆞ고 군관 집ᄉᆞ와 친긔위 군병과 기싱은 각 현신ᄒᆞᆯ ᄉᆡ 몬져 군관 댱교를 작ᄃᆡᄒᆞ여 ᄎᆞ례로 열 식 드러뵈게 ᄒᆞ고 인ᄒᆞ야 그 ᄎᆞᄂᆞᆫ 병잠기와 궁시를 점검ᄒᆞ여 뎍간(摘奸)ᄒᆞ니 병긔 ᄀᆞ초디 못ᄒᆞᆫ 댱괴 무수ᄒᆞ여 문 밧긔 메여 황황ᄒᆞ여 ᄒᆞᄂᆞᆫ 거동이 심히 우습더라. 병긔 ᄀᆞ초디 못ᄒᆞᆫ 군관 댱교를 결곤티죄ᄒᆞ니 셩듕이 홍홍ᄒᆞ고 병ᄉᆡ 또ᄒᆞᆫ 무안ᄒᆞ여 ᄒᆞ더라.[38]

병장기(兵仗器)며 갑오시 파락(破落)ᄒᆞᆫ 거시 무수ᄒᆞ고 혹 형톄 바히 업ᄂᆞᆫ 거시 만흐니 젼후 병ᄉᆞ들이 녕의 와 탐남ᄒᆞ기만 일삼고 국ᄉᆞ(國事)를 폐ᄒᆞ여 이러ᄒᆞ니 가히 한심ᄒᆞ더라. 즉시 장계(狀啓)ᄒᆞ여 나라히 알외여 티죄(治罪)ᄒᆞ게 ᄒᆞᆯ 거시로ᄃᆡ 일이 듕대(重大)ᄒᆞ여 병ᄉᆞ(兵史)다려 닐너 밧비 ᄀᆡ비(改備)ᄒᆞ라 ᄒᆞ니라.[39]

함경도 지역의 關防 시설을 점검하는 일은 북평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함경도 城津은 변방 지역의 군사 요충지였지만, 작가의 눈에 비친 것은 쇠잔한 軍兵들과 陳法에 능숙하지 않은 책임자였다. 병마절도사의 진영이었던 鏡城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인용문에서 보듯이, 北兵營의 軍士와 軍物을 점검한 결과 병장기와 갑옷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북평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세택은 변방지역 함경도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작자가 바라본 함경도 지역과 지역민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물ᄀᆞ와 져재 거리의 무수ᄒᆞᆫ 유녀(遊女)들이 녹의홍샹(綠衣紅裳)의 운ᄌᆞ셩식

37)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7월 29일.
38)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4일.
39)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6일.

으로 노래 브ᄅᆞ며 산유화(山有花)ᄒᆞ고 십ᄇᆡᆨ위군(十百爲群)ᄒᆞ여 왕ᄂᆡ(往來)ᄒᆞ고 ᄇᆡ 가온대 댱ᄉᆞ들과 져재예 안ᄌᆞ 셔울 샹고(商賈)들이 혹 삼현(三絃) 티며 혹 노래 불너 긔샹(氣像)이 번화(繁華)ᄒᆞ여 긔특(奇特)ᄒᆞ니 녜브터 원산(元山)이 듕원(中原) 셔호(西湖)와 ᄀᆞᆺ단 말이 과연 올타라.[40]

이십일일 새ᄇᆡ 니러 글을 ᄀᆞᆯ나 죵일토록 고ᄅᆞ다. 젼의 드르니 븍도 죠ᄒᆡ 귀ᄒᆞ여 명지(名紙)ᄅᆞᆯ 다 ᄇᆡ지(背紙)로 ᄒᆞᆫ다 ᄒᆞ더니 이번은 그러티 아니ᄒᆞ여 태반이나 셔울 됴흔 명지오 문필(文筆)도 무던ᄒᆞ더라.[41]

첫째 인용문은 함경도 원산의 번화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원산은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場市가 발달함에 따라 도로도 많이 개설되었다. 배의 수송 능력이 커지고, 海路가 다시 개척되고 수상 운수도 발달하였던 상업 도시로서 크게 번성하였던 것이다. 원산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場市가 발달한 곳 중의 하나였는데, 작자는 상업도시로서의 번화한 모습을 크게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의 낙후한 지역으로 대하는 시선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둘째 인용문은 8월 21일 함경도 高原에서 실시했던 과거 시험과 관련한 대목이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기 위해 작자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을 고원 고을에서 체류하였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서 작자가 느낀 새로운 사실은 과거 시험용지도 서울 종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과거 답안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함경도 지역 문사들의 실력을 부정적으로 폄하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함경도 지역민과 관련하여 작자는 함흥의 기생 可憐과 蘇情을 특별히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 함흥을 방문했던 작자는 俠妓로서 유명했던 可憐을 만나보고자 하였다. 함흥기생 可憐(1671-1759)은 작자가 방문한 두 해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가련의 女俠으로서의 이미지는 주로 남인과 소론계 인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특징을 보였다.[42] 함흥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에 작자는 可憐의 조카였던

40)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28일.

41)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21일.

42)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과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蘇情을 만나 그가 보관하고 있던 詩軸을 열람하였다. 가련이 남긴 시첩은 可憐의 사후 그의 조카 蘇情에 의해 보관 전승되고 있었다.[43] 함경도 지역에서 만난 인물 가운데 특별히 함흥의 기생이었던 可憐을 찾아보고 그의 조카였던 蘇情이 보관하고 있던 詩帖을 열람했던 것은 영남 남인으로서의 정치적 입장과 연관지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북평사로 부임한 이세택은 북관의 산수를 "진실노 긔특(奇特)ᄒᆞ여 남방 산슈의 추러ᄒᆞᆫ 거동과 ᄌᆞ별ᄒᆞ더라"[44]고 한 바 있다. '추러하다'는 뜻은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는 말로, 남루하다라는 말과 통한다. 생기가 없고 남루한 모습의 남방 산수에 비하여 작자의 눈에 비친 북방의 산수는 '명랑하여 그림 같다'. 북관을 바라보는 이세택의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기이하고 특별하면서 중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 션ᄇᆡ ᄀᆡ문 후 문의 드ᄂᆞᆫ 소ᄅᆡ ᄯᅡ히 문허디ᄂᆞᆫ ᄃᆞᆺᄒᆞ더라. 븍쳥 션ᄇᆡ들이 영흥 션ᄇᆡ와 ᄲᅡ화 서로 졍거(停擧)ᄒᆞ려 ᄒᆞ다가 인ᄒᆞ야 작난(作亂)ᄒᆞ여 참부시관(參副試官)의 하쳐(下處)ᄅᆞᆯ 다 파(罷)ᄒᆞ고 극위(棘圍)ᄅᆞᆯ ᄯᅳᆺ고 하인을 구타ᄒᆞ여 긔상(氣象)이 고이ᄒᆞ고 ᄀᆡᆨ샤 마로 압ᄒᆡ 무수히 와 족닙(簇立)ᄒᆞ여 각각 손의 매와 돌을 들고 난댱(亂場)ᄒᆞ려 ᄒᆞᄂᆞᆫ디라.
>
> 참부시관이 다 놀나고 겁ᄂᆡ여 급히 피ᄒᆞ여 방으로 들거ᄂᆞᆯ 혜오ᄃᆡ 뎌 션ᄇᆡ들이 비록 무리 패악ᄒᆞ나 ᄉᆞ리로 ᄀᆡ유(開諭)ᄒᆞ면 감화(感化) 아닐 니 업고 즈러겁ᄂᆡ여 피ᄒᆞᄂᆞᆫ 거시 도로혀 견경(見輕)이매 혼자 교위예 안자 요동(搖動)티 아니ᄒᆞ고 웃ᄉᆞ며 셔리(胥吏)ᄅᆞᆯ 불너 그 션ᄇᆡ 듕 나만큼 인ᄉᆞ(人事) 알 듯ᄒᆞᆫ 쟈ᄅᆞᆯ 불너 효유(曉諭)ᄒᆞ여 닐오ᄃᆡ --- 오후의 비로소 션령이 들고 년ᄒᆞ여 글을 바티니 븍도 션ᄇᆡ 바히 젹고 글이 바히 업다 ᄒᆞ더니 이번은 션ᄇᆡᄂᆞᆫ 무수ᄒᆞ고 글도 소문과도 다ᄅᆞ더라. 낫후브터 고ᄅᆞ기ᄅᆞᆯ 시작ᄒᆞ여 밤든 후 파ᄒᆞ다.[45]

북평사로서 함경도 고원에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고 있을 때에 겪었던 사건을 매우

---

43) 가련 시첩을 포함한 조선후기 기생 시첩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 문화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우봉, 「조선시대 기생 시첩의 존재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참조.

44)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7월 20일.

45) 李世澤, 『북정동유록』 권1, 8월 20일.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이른바 함경도 고원 지역 문사들의 科擧 亂場 사건이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 관료로서의 이세택이 함경도 현지 선비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亂場이라고 한다. “븍도(北道) 난댱(亂場) 파방(罷榜)이 번마다 들니니”라는 말에서 보듯, 亂場으로 인해 함경도 지역에서 과거 합격자의 발표를 취소한 사례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선비들이 과거 亂場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작자는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이번 작난ᄒᆞ기ᄂᆞᆫ 과연 븍쳥부ᄉᆞ와 문천군쉬 션ᄇᆡ ᄃᆡ졉을 아니ᄒᆞ기로 바로 분ᄒᆞ여 난 일이오.” 라고 하는 함경도 선비들의 말에서 보듯, 난장을 일으킨 이유는 중앙 관료로 파견된 이들이 함경도 지역의 문사들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다. 이번 과거 亂場 사건의 경우 북청부사와 문천군수 등이 함경도 지역의 문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하였던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고원 지역 문사들이 손에 돌을 들고 과거 시험장에 난입하여 소동을 벌인 것이었다.

과장의 主試官은 이세택이었으며, 북청부사가 副試官, 문천군수가 參試官으로 참여하였다. 科擧亂場이 일어나자 부시관과 참시관은 도망을 가기에 바빴지만, 작자는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처하였는데, 작품 내에 이 점이 부각되어 있다. 과거 시험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함경도 선비들의 亂場 행동에 대해 작자는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함경도 선비들의 亂場 행위을 治罪하기 보다 그들을 曉諭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하였다. “션ᄇᆡ 되여 녯 셩현셔(聖賢書)ᄅᆞᆯ 보앗거ᄂᆞᆯ 션ᄇᆡ의 티신(置身)ᄒᆞᄂᆞᆫ 법도(法度)ᄅᆞᆯ 대강이나 알리니”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유학을 공부하였던 함경도 문사들을 말로써 깨우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청부사나 문천군수 등이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던 셈이다.

이 점은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븍도 션ᄇᆡ 바히 젹고 글이 바히 업다 ᄒᆞ더니 이번은 션ᄇᆡᄂᆞᆫ 무수ᄒᆞ고 글도 소문과도 다ᄅᆞ더라—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함경도 선비들이 아주 적고 글도 아주 없다’고 하였던 기왕의 소문이나 통념과 다르다는 점을 작자는 과거 시험을 직접 주관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교 경전을 학습하고 문장을 배운 함경도 문사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의 문장 수준 또한 결코 낮지 않았음을 직접 목도하였던 것이다. 작자는 함경도 지역에 대한 기왕의 소문이나 통념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아,

함경도 지역 및 그 지역 문사들에 대해 작자는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Ⅳ. 마무리

한글본 연행록을 제외하고 한글 기행문은 현재까지 10여 편 정도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기행문은 李聖興이 쓴 <금강유산일기>이다. 최승범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이 작품은 이성흥이 1715년 금강산을 유람했던 경험을 다루고 있다.[46] 연행록의 한글 번역본도 기행문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글 기행문의 역사는 좀 더 앞으로 소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가재연행일기>의 한글본이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성흥의 <금강유산일기>가 최초의 한글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한글 기행문이 활발하게 창작된다.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의유당 남씨가 쓴 <동명일기>가 있으며, 또한 柳義養 (1718~?)의 <북관노정록>과 <남해문견록>이 있다. <동명일기>는 의유당 남씨(1727~1823)가 남편 申大孫을 따라 1772년 함흥에서 본 일출의 장관을 매우 감각적이며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이다. <북관노정록>은 1773년에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던 체험을 기록하였으며, <남해문견록>은 1771년에 유의양이 경남 남해로 유배를 갔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李羲平의 <화성일기>는 1795년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다녀온 경험을 쓴 일기작품이다.

이번에 신자료로 새롭게 발굴 소개한 李世澤(1716~1777)의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은 1761년에 북평사로 임명된 작자가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를 여행했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의유당 남씨의 <동명일기>, 유의양의 <북관노정록>과 <남해문견록>, 이희평의 <화성일기>에 비해 약간 앞서 창작되었다. <북정동유록>과 함께 이들 작품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글 기행문이 매우 활발하게 창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

46) 최승범에 의해서 처음 〈금강유산일기〉가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그 작자가 이성흥이라는 점은 장유진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최승범, 『한국수필문학연구』, 정음사, 1980; 장유진, 「금강유산일기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북정동유록>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활성화되었던 한글 기행문의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다. 이성흥에 의해 한글 기행문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던 18세기 전반의 흐름을 이어받아 18세기 후반 한글 기행문의 활발한 창작을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북정동유록>의 문학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정동유록>은 분량이 많으며 산수유람 이외에 중앙 관료로서의 공무 수행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정동유록>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고 대략 35,000여 자에 달하며,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 보면 180여 장이다. 이성흥의 <금강유산일기> 또한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대략 17,000여 자에 달한다. 분량이 확대된 점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긴 편폭 속에서 작자는 자신이 체험했던 경험을 보다 구체화시켜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李世澤의 <북정동유록>은 북평사로서의 공무 수행과 그에 따른 작자의 개인적인 정감과 견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한글 기행문과 구별되기도 한다. 지방에 파견된 중앙 관료서의 경험을 다룬 한글 기행문이라는 점에서도 <북정동유록>은 한글 기행문의 제재와 내용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한글 기행문은 유배객의 처지에서 유배지로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특정 공간(특히 금강산)을 유람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북정동유록>에서 금강산을 비롯한 빼어난 명승지를 유람하는 대목이 주목할 부분이지만, 북평사로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군사들을 점검하며, 도중에 함경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관료로서의 체험을 다룬 이들 대목들은 기왕의 한글 기행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소재와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글 독자의 관심과 요구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글 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를 분석한 이 논문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었던 한글기행문의 주요 양상과 국면을 구명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0.02.03 심사일: 2020.02.28 게재확정일: 2020.03.09

참고문헌

李世澤,『북정동유록』 권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_____,『북정동유록』 권2, 단국대도서관 소장본
_____,『洛窩拙記』,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_____,『淸凉志』, 규장각 소장본
미 상,『鈞隱稡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_____,『國朝歷年士禍錄』,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_____,『別下册』,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소장본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퇴계선생연보국역본』, 한국출판사, 1992
柳義養,『북관노정록』,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_____,『남해문견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최강현 역주,『후송 유의양 유배기 북관노정록』, 신성출판사, 1999
_____,『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견록』, 신성출판사, 1999
의유당 남씨 저, 유준경 역주,『의유당관북유람일기』, 신구문화사, 2008
연안김씨 이희평 저, 강한영 교주,『의유당일기 화성일기』, 신구문화사, 1974
金元根,『금강산절긔 유산록』, 개인 소장
金賢根,『동유기』,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李瀣,『北行錄』,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한민섭 역,『온계선생북행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朴來謙,『北幕日記』, 규장각 소장본
趙宗鉉,『天隱亂稿』, 규장각 소장본
『眞城李氏溫溪派世譜』 1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眞寶李氏世譜』 4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강석화,『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김정경,『조선 후기 여성 한글 산문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박래겸 저, 조남권 · 박동욱 역,『북막일기』, 글항아리, 2016
배우성,『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우인수,『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전병철 외편,『청량산 산지』, 이회, 2008

조병균 저, 최강현 역주,『금강산 불국인가 선계인가』, 신성출판사, 1999
청량산박물관 편,『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민속원, 2017
최강현,『한국문학의 고증적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6
최승범,『한국수필문학연구』, 정음사, 1980

강석화,「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강화」,『규장각』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구사회,「새로운 한글 유산록 <금강산졀긔 동유록>의 작자와 작품 분석」,『동악어문학』73, 동악어문학회, 2017
김형수,「조선 중 · 후기 안동지역 사원의 동향과 용수사의 운영」,『국학연구』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박정애,「18~19세기 咸鏡道 王室史蹟의 시각화 양상과 의의」,『한국학』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_____,「朝鮮 後半期 關北名勝圖 연구」,『미술사학연구』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유준경,「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과 여성문학사적 가치」,『한국문학논총』45, 한국문학회, 2007
윤동원,「안동지방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고인쇄문화』15,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이승복,「국문본 <동유기>의 작자와 서술의 특성」,『고전문학과 교육』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_____,「유의양의 유배체험과 그 제시 방식」,『고전문학과 교육』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장유진,「금강유산일기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전병철,「청량지를 통해 본 퇴계 이황과 청량산」,『남명학연구』26,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08
_____,「명대 양긍의 <무이지>가 조선에 끼친 영향」,『한문학논집』42, 근역한문학회, 2015
정우봉,「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과 그 의미」,『한문교육연구』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_____,「조선후기 기생시첩의 존재양상과 그 문화사적 의미」,『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_____,「조선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關北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고전과 해석』1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5
최강현,「북관노정록 소고」,『국어국문학』62, 국어국문학회, 1973
_____,「새자료 동유기 해제」,『한국학보』2-3, 일지사, 1976

최고경, 「천은 조종현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kostma.korea.ac.kr

Analysis of the Author and Work of New Korean Record, *Bukjeongdongyurok*

Chung, Woo-bong

In this paper, I explored and showcased the author and work of new Korean record, *Bukjeongdongyurok*. This work is a new record unknown to the academic world. *Bukjeongdongyurok* recorded the experiences of Lee Se-taek's trip to Hamgyeong province and Mt. Geumgang in 1761. He was appointed to the office of Bupyeongsa, and he worked in Hamgyeong Province.

This work has a work structure in which the part of performing public service and the sight-seeing spot are interlaced. The first part of the work, '北征錄', stands out as an official who performs public service, while the second part of the work, '東遊錄' stands out as a tourist who visits the famous natural landscape. The work is structured in a combination of the two.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were divided into interesting and realistic descriptions of natural landscapes, widespread use of interesting narratives and tales, interest in Chosŏn royal ruins, and public service as officials.

Key Words : Travel journals, Landscape essay, *Bukjeongdongyurok*, Lee Se-Teak, Hangul, Mt. Geumgang, Hamgyeong Province

[부록 1] 〈북정동유록〉의 여정

1761년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북평사 임명 교지를 받는 날부터 시작하여 경상도 영해 도착까지 기록하였음.

6월 24일 弘文館 副應敎로서 咸鏡道 兵馬評事에 임명되는 교지를 받고 7월 4일 慶尙道 禮安에서 출발하여 7월 9일 漢陽에 入城함. 7월 10일에 肅謝하고 7월 16일에 친구들과 작별하고 출발함. 당시 전별한 사람은 京畿監司 蔡濟恭, 判決事 李光瀷, 正言 李徽中, 掌令 申近 등이었음.

7월 16일 : 東大門 關王廟 - 綠楊驛 - 抱川縣
7월 17일 : 抱川縣 - 梁文驛(아침) - 豐川驛 - 金化
7월 18일 : 金化縣 - 金城縣(점심) - 昌道驛
7월 19일 : 昌道驛 - 延送浦 - 新安驛(점심) - 淮陽府
7월 20일 : 淮陽府 - 鐵嶺 - 高山驛(점심) - 釋王寺
7월 21일 : 釋王寺 - 安邊府 - 元山 - 德原府
7월 22일 : 德源府 - 文川郡(점심) - 高原郡
7월 23일 : 高原郡 - 永興府(아침) - 龍興江 - 延賓館(점심) - 草原驛 - 定平府
7월 24일 : 定平府 - 咸興府
7월 25일 : 咸興府 - 德山驛(점심) - 咸關嶺 - 洪原縣
7월 26일 : 洪原縣 - 平浦倉(점심) - 北靑府
7월 27일 : 北靑府 - 居山驛(점심) - 侍中臺 - 利城縣
7월 28일 : 利城縣 - 谷口驛(점심) - 望雲嶺 - 端川府
7월 29일 : 端川府 - 磨谷院(점심) - 摩天嶺 - 城津
7월 30일 : 城津 - 臨溟館(점심) - 吉州牧
8월 1일 : 吉州牧 - 阿倉(점심) - 朴達嶺 - 七寶山 - 七寶山 金藏寺
8월 2일 : 七寶山 - 明川府
8월 3일 : 明川府 - 立石 - 鬼門關 - 朱村(점심) - 永康館
8월 4일 : 永康館 - 鏡城府

8월 5일 : 鏡城府
8월 6일 : 鏡城府
8월 7일 : 鏡城府
8월 8일 : 鏡城府 - 永康館
8월 9일 : 永康館 - 朱村(점심) - 鬼門關 - 明川府
8월 10일 : 明川府 - 古站(점심) - 吉州牧
8월 11일 : 吉州牧 - 臨溟館(점심) - 城津
8월 12일 : 城津 - 摩天嶺 - 磨谷(점심) - 端川府
8월 13일 : 端川府 - 望雲嶺 - 谷口驛(점심) - 利城縣
8월 14일 : 利城縣 - 侍中臺 - 居山倉(점심) - 北靑府
8월 15일 : 北靑府 - 平浦倉(점심) - 洪原府
8월 16일 : 洪原府 - 咸關嶺 - 德山(점심) - 歸州洞 - 慶興殿 - 歸州寺 - 咸興府
8월 17일 : 咸興府 - 咸興本宮 - 豊沛樓 - 樂民樓 - 萬歲橋 - 定平府
8월 18일 : 定平府 - 草原驛(점심) - 龍興江 - 永興府
8월 19일 : 永興府 - 濬源殿 - 太祖 誕降碑 - 高原郡
8월 20일 : 高原郡
8월 21일 : 高原郡
8월 22일 : 高原郡
8월 23일 : 高原郡
8월 24일 : 高原郡
8월 25일 : 高原郡 - 文川郡
8월 26일 : 文川郡 - 德源府
8월 27일 : 德源府
8월 28일 : 德源府 - 元山 - 安邊府
8월 29일 : 安邊府
9월 1일 : 安邊府
9월 2일 : 安邊府
9월 3일 : 安邊府
9월 4일 : 安邊府
9월 5일 : 安邊府

9월 6일 : 安邊府
9월 7일 : 安邊府 - 朔安店 - 國島 - 鶴浦
9월 8일 : 鶴浦 - 磨釵浦 - 侍中臺 - 협곡(점심) - 文峙嶺 - 叢石亭 - 通川郡
9월 9일 : 通川郡 - 운암관(점심) - 金剛山 神溪寺
9월 10일 : 神溪寺 - 玉流洞 - 九龍淵 - 鉢淵寺
9월 11일 : 鉢淵寺 - 馳瀑巖 - 孝養嶺 - 圓通寺 - 朴達嶺 - 榆店寺
9월 12일 : 榆店寺
9월 13일 : 榆店寺 - 船潭 - 妙吉祥 - 摩訶衍 - 萬瀑洞 - 普德窟 - 表訓寺
9월 14일 : 表訓寺 - 內圓通菴 - 成佛菴 - 須彌臺 - 迦葉峰 - 圓通菴(점심) - 表訓寺 - 天逸臺 - 正陽寺
9월 15일 : 正陽寺 - 表訓寺 - 釋迦峰 - 望高臺 - 靈源洞 - 百塔洞 - 玉鏡臺 - 長安寺
9월 16일 : 長安寺 - 萬川橋 - 鳴淵 - 表訓寺 - 歇惺樓 - 噴雪菴 - 普德屈 - 眞珠潭 - 摩訶衍(점심) - 白雲臺 - 摩訶衍
9월 17일 : 摩訶衍 - 百川潭 - 七寶臺 - 船潭(紅流洞) - 榆店寺
9월 18일 : 榆店寺 - 百川洞 - 鏡浦(점심) - 三日浦 - 高城郡
9월 19일 : 高城郡 - 龜峰 - 列山 - 용파역(점심) - 杆城郡
9월 20일 : 杆城郡 - 仙遊潭 - 明沙 - 淸澗亭 - 永郎湖 - 洛山寺
9월 21일 : 洛山寺 - 觀音窟 - 義湘臺 - 襄陽府 - 洞山驛(점심) - 連谷倉
9월 22일 : 連谷倉 - 鏡浦臺 - 江陵府(점심) - 羽溪觀
9월 23일 : 羽溪觀 - 平陵驛(점심) - 三陟府 - 竹西樓
9월 24일 : 三陟府 - 交柯驛 - 龍化驛(점심) - 召公嶺 - 沃原驛
9월 25일 : 沃原驛 - 蔚珍縣
9월 26일 : 蔚珍縣 - 望洋亭(점심) - 越松亭 - 寧海府
9월 27일 : 寧海府 - 白石浦